

총회록

Minutes of Some Late Conversations Between the
Rev. Mr. Wesleys and Others, in 1744, to 1747

조종남 역

1. 대담 1

1744년 6월 25일 월요일

파운더리(Foundery)에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존 하지스(John Hodges, Rctor of Wenvo), 헨리 피어스(Henry Piers, Vicar of Bexley), 사무엘 테일러 (Samuel Taylor, Vicar of Quinton), 존 메리톤(John Meriton)이 함께 모여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우리가 함께 회의 안건에 대해 의논하는 가운데, 다음의 문제들을 고찰하기로 정하였다.

1.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우리의 교리, 교회 규율, 교습(practice) 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우리는 칭의의 교리(doctrine of Justification)를 고찰하기 시작했다.
이 교리에 관하여, 문답식으로 다음과 같이 담화하였다.

문 1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칭의(Justification)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 계속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문 2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인가?

답변 그렇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믿은 자는 모두 의롭다 함을 받는다.

문 3 그러나 이 믿음에 앞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 의심할 바 없이 그렇다. 만일 당신이 이해하기를,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형제를 용서하는 것,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우리들이 받은 능력을 따라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다.

문 4 믿음은 어떤 것인가?

답변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말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과거, 미래 또는 영적인 일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확신 곧 초자연적인 확신(elenchos)이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먼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죄인에게 깨우쳐 주신다. 바로, 이 믿음에 의하여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곧 용서를 순간적으로 받는다. 그 성령은 지체 없이 "당신은 용서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다"고 증거하신다. 이것이 '참 믿음(saving faith)'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다.

문 5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인가?

답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은 '롬 8:15; 엡 4:32; 고후 13:5; 히 8:10; 요일 4:10, 19'에서 읽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수반한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사리에 비추어 봐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믿으면, 그 믿음은 고통에서 평안을, 수고에서 쉬움을, 어둠에서 빛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또한 순간적으로 나타난다. 그 열매들도 마찬가지다.

문 6 이것 없이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

답변 이방인은 무엇을 하려 할지 모르지만(롬 2:14), 성경은, 복음을 듣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막 16:16)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문 7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justifying faith)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답변 평강과 기쁨, 사랑, 외적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내재적 죄를 억누르는 힘이다.

문 8 자신 안에 증거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답변 우리는 그를 믿는 자라고 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요, 사랑과 순종은 믿음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속성이다.

문 9 의롭게 하는 믿음에 양립하는 죄는 어떤 것들인가?

답변 무의적 죄, 곧 무의식 중에 짓는 죄이다. 신자가 의지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곧 믿음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회개하지 않고서는 의롭게하는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없다.

문 10 모든 신자들은 의심이나 두려움 또는 흑암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신자가 모르는 가운데 또는 조심 하지 않다가 빠지는 경우 외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신자가 의도적으로 빠지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날 것인가?

답변 신자가 결코 다시 정죄함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는 분명하다. 또한, 의심이나 두려움, 또는 흑암에 빠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해, 신자가 모르는 가운데 또는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신자에게 처음 주어진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이다. 흔히 의심과 두려움이 뒤 따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신자들에게 종종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신다.

문 11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행함(works)이 필요한가?

답변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다. 사람이 죄를 의지적으로 범하거나 또는 태만의 죄(sin of omission)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

문 12 행함이 없다는 것만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답변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만 그럴 수 있다.

문 13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약 2:22)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답변 믿음이란, 그 믿음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있는 자에게 더 줄 것이라' 하였다.

문 14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로 당착되는 말이 아닌가?

답변 당착되지 않는다. 1) 왜냐하면 저들은 같은 의미에서 '칭의' (Justification)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곧 이삭이 나기 20여 년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위에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또한 저들은 동일한 '행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 즉 사도 바울은 믿음에 앞서 있는 행함(work), 곧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가 하면, 야고보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work)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 15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는 것이다. 곧 1)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mortal body). 2) 우리의 영혼도 죽었다. 곧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리하여 그 후로 3) 우리는 사악하고 악마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4)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요, 영원한 정죄에 이르게 된 것이다(롬 5:18, 엡 2:3).

문 16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인류에게 또는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인가?

답변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롬 4:5)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에게 전가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 성경 본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칭의가 되리라'(롬 5:19)고 한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원죄)의 죄책에서 면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통하여 1)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할 것과 2)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capacity), 그리고 3) 실제로 영적 씨앗과 깨달음을 받게 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4) 모든 신자는 은혜의 자녀, 곧 하나님과 화목한 자, 5)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문 17 우리가 칼빈주의에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답변 우리가 그렇게 된 듯하다.

문 18 우리가 또한 도덕폐기론에 기울어지고 있거나 않는가?

답변 우리가 그렇게 된 듯하다.

문 19 도덕폐기론은 어떤 것인가?

답변 도덕폐기론이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교리이다.

문 20 도덕폐기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답변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 1) 그리스도께서 도덕적 율법을 폐지하였다.
- 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 3)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데에서 해방된 것이다.
- 4) 어떤 일이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든가 또는 금지되었기에 참는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의 속박이다.
- 5) 신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을 지키거나 또는 선행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6) 설교자는 선한 일을 하라고 권고하지 말아야 한다. 미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상처를 받을 터이니 권하지 말고, 신자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선행을 권고하지 말라고 한다.

문 21 어떤 계기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답변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다.

문 22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어떤 것을 강조하였는가?

답변 바울은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기 위하여 그 서신을 썼다.

- 1) 사람이 율법의 행위 또는 도덕적 행위나 의식을 행함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 2) 모든 신자는 율법의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문 23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 (갈 2:6)라고 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여기서 말하는 '행위' (works)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행위를 의미한 것이다.

문 24 '율법 아래 있었다' (갈 3:23)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답변 이는 모세의 제도(섭리시대) 아래 있었다는 뜻이다.

문 25 그리스도께서 폐지하신 법은 어떤 것인가?

답변 모세가 정한 의식에 관한 법이다.

문 26 여기에 '자유' (갈 5:1)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1744년 6월 26일 화요일 오전

성화의 교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성화의 교리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한 중요한 내용이다.

문 1 거룩하여 진다(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의와 성결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짐을 의미한다.

문 2 믿음이 성화의 조건이요 수단인가?

답변 믿음은 성화의 조건이요, 수단이다.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성화는 시작한다. 그리고 믿음이 증진하는 데에 따라 성화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때까지 성장한다.

문 3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답변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신 6:5; 30:6; 겔 36:25-29).

문 4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내재적인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답변 의심할 바 없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불결한 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겔 36:29).

문 5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어떤 것들인가?

답변 기적적인 영의 분별력 없이는 그렇게 구원 받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 곧 1) 그들에게서 책망할 것이 없는 선행이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 되며, 2) 그들이 정직한 말로, 죄에서 구원 받은 것에 대하여, 시간과 방식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을 똑똑히 설명하고 있고, 또한 3) 그 이후, 그들의 성질, 말, 그리고 행동들이 정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 '그들은 죄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한다.

문 6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여 하는가?

답변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권하라.

6월 27일, 수요일

우리는 훈육(Discipline)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이에 관한 질문과 대답들을 아래에 적었다.

문 1 영국 성공회는 어떤 교회인가?

답변 신앙개조 20조에 의하면, 가시적인 영국 성공회는 영국의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곳이다(그러나 교회라는 말이 어떤 때는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할 때도 있다. 신앙개조 26조나 요한계시록 1, 2, 3항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문 2 누가 영국 교회의 교인(member)인가?

답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그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례전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문 3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에 열심히 책임을 다 하여야 하는가?

답변 교회의 번영과 성장을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 곧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친교를 함으로서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며, 또한 교회를 부흥시킴으로 교회의 성장을 갈망하여야 한다.

문 4 우리가 교회의 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답변 우리가 교리에 대해 설교하며, 동시에 그렇게 생활함으로서 지켜야 한다.

문 5 우리는 거짓된 설교나 폭언으로 하는 설교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답변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것일 때는, 우리는 조용히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영을 훼방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위의 두 경우에 있어 어떤 경우이던,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설교자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 6 우리가 감독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답변 모든 일에서 순종하여야 한다. 순종하는 데에 있어, 우리는 양심이 옳다고 허락하는 한, 경전들(성경의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

문 7 우리는 영국 성공회에서 분리하는 것인가?

답변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항상 영국 성공회 내에서 설교를 들으며,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꼭 신도와의 교제를 계속 유지한다.

문 8 그들은 '당신이 교회로부터 이탈한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답변 그들이 말하는 의미를 확실히 모르겠다.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 자신들이 교회이며, 반면에 우리는 그릇된 교리를 설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교역자 그룹들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들은 그들이 부정하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들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문 9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 이 질문은 바로 자신들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던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느 사람의 일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뜻하지 않게 우발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의하여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전에 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우리들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 곧 영국의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결코 약화시키고 있지 않다.

문 10 당신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그룹이나 종파로 모이든지 또는 저들이 하나의 다른 종파를 형성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답변 1)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도 교회가 우리를 내쫓지 않은 한, 그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 아무튼 우리는 저들이 내어 쫓기든지, 아니면 저들이 전체 교회를 변화시키든지 할 것이라고 믿는다.
3) 우리들이 죽은 후,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 일을 미리 막고 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예방할 것이다.
4)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를 등한히 할 수는 없다.

1745년 8월 1일, 브리스톨에서 열린 제2차 회의

브리스톨 뉴룸 예배당(New-Room)에 모여서 우리들은 칭의에 관하여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다시 상고하였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존 웨슬리(John Wesley),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존 핫지(John Hodge), 토마스 리차드(Thomas Richard), 사무엘 라우드(Samuel Larwood), 토마스 마이릭크(Thomas Meyrick), 리차드 모스(Richard Moss), 존 스로콤베(John Slocombe), 허버트 젠킨스(Hervert Jenkins), 마르마듀크 권(Marmaduke Gwynne).

문 1 이 주제에 관하여 저술된 것들이 분명치 않고 애매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런 애매함이 주제 자체의 성격에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다룬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에서 온 것인가?

답변 애매한 것은 주제의 성격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마귀가 그 중요한 주제를 혼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지나친 열광주의 저자들이 취급한 데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 2 우리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일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회개가 그 믿음에 앞서 있지 않는가? 그리고 기회가 있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는 행함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답변 의심할 바 없이 그렇다.

문 3 그렇다면 그것들 곧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칭의의 조건들이라는 것을 어찌 부인할 수 있는가? 이는 단지 말장난인가? 칭의의 조건들에 관하여서 계속 논쟁할 가치가 있는가?

답변 이 문제가 심히 함부로 다루어졌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두어라.

문 4 우리는 박스터 씨(Mr. Baxter)가 쓴 “칭의에 관한 아포리즘(경구들)”을 함께 읽는 것이 유익한가?

답변 제발, 그리하라.

(위의 질문들을 차례로 읽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회의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부분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회의 때, 우리들이 언급한 데에서 야기될 만한 이론들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8월 2일 금요일, 다음의 질문들이 제시되었다.

문 1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곧 구원 받은 자)에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가?

답변 '없다고' 우리는 감히 말하지 않는다.

문 2 그것은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에도 필요한 것인가?

답변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문 3 그것이 궁극적 구원(final salvation)에도 절대 필요한 것인가? 짐작컨대, 천주교인, 퀘이커 교도들은 그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하였을 터인데 말이다.

답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몰랐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 우리는 모르겠다.

문 4 우리 회원 가운데도, 런던에 살던 J. W.의 경우와 같이 그런 확신 없이 죽은 자가 있는데, 그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답변 그가 정말 그런 가운데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경우는 하나의 예외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다. 그저 우리는 그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문 5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모르면서 계속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답변 우리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무한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눈에 비치는 태양을 보는 사람과 눈을 크게 뜨고 서서 태양의 빛을 전체로 보는 사람에서 그들이 태양을 보는 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

는 것이다.

문 6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답변 그럴 수는 없다. 어떤 환경에 있던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문 7 고넬료의 경우를 심중이 생각해 보았는가?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했을 때 곧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곧 구원 받고) 있었던 것인가?

답변 그는 어느 정도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같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관하여 그리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 8 그러면 그런 행위들은 그의 ‘더할 나위 없는 인간성(죄)’에서 나온 것인가?

답변 아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

문 9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느낌을 갖기 전에 행한 일들은 다 죄이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가?

답변 복음을 이미 들었으나 믿지 않은 사람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하여야 할지 모르겠다.

문 10 이 문제에 관하여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았으니, 우리들을 반대하는 그들을 아주 부드럽게 대하면 안되겠는가?

답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문 11 신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강권 당하는가?

답변 처음에는 종종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 후로는 그가 순종하던지 혹은 그렇지 않던지, 그에게 강제성은 없어지게 된다.

문 12 한번 불순종함으로 믿음이 사라 질수 있나?

답변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신자가 처음에 내적으로 불순종하여, 그

마음 안에서 죄로 치우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다. 곧 그의 믿음이 느슨해진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더욱 약해져서, 외적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문 13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나?

답변 회개하며 처음 하던 일을 행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계 2:5).

문 14 그 많은 신자들이 어디에서 의심에 또는 두려움에 빠지는가?

답변 주로 그들의 무지와 또는 성실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종종 그렇게 된다. 때로는 그들의 어떤 결함 때문에 또는 그들이 듣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문 15 우리에게도 결함이 있지 않은가? 우리들은 처음에 한 것처럼 설교하는가? 우리의 교리를 변경하지는 않았는가?

답변 1) 처음에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미신자들에게 설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거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로부터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이 전한다.

2) 그러나 이미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을 향하여 나가라고 권고한다. 우리들이 처음부터 완전에 대하여 종종 말하였지만, 그 교리에 대하여 처음에는 분명히 알지 못하였다.

3)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데, 우리들이 6년 전에 그랬듯이 분명하게, 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전한다.

문 16 만일 우리들이 그들 모두를 전적으로 정죄한다면, 그들이 환상을 보며 꿈꾸는 것을 실망시키는 것이 되지 않는가?

답변 우리에게 그런 의도는 없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지도 않으며 또한 격려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사도행전 2:17에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믿음이 때로는 밤에 꿈과 비전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왔던, 그 믿음이 보다 좋다 또는 보다 나

쁘다고 여기지 않는다.

문 17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치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너무 적게 설교하고 있지 않는가?

답변 그들이 그런 극단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다.

문 18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주님에 대하여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답변 아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가장 강한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문 19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위대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답변 아마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신자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위대하다.

문 20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칭의(Justification)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하지 않는가?

답변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의식중에 한 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 21 어떻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답변 온전한 성화에 대하여 말하고자 할 때,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축복을 아주 강하게 설명하도록 하자.

문 22 복음의 진리가 칼빈주의와 도덕폐기론에 가깝지 않는가?

답변 진실로 그렇다. 이를테면,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그들과 모든 것에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

문 23 어떤 점에서 우리가 칼빈주의와 같다는 것인가?

답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다.

- 1) 모든 선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 2) 자연인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며, 또한 은혜에 앞서의 모든 능력을 부인하는 일에서, 그리고

3) 사람의 모든 공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행한 공로까지 사람의 공로를 배제하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문 24 어떤 점에서 우리가 도덕폐기론과 동일한 입장에 있다는 것인가?

답변 1)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을 높이는 데에서,

2) 항상 기뻐하는 데에서 그렇다.

문 25 믿음은 성결 또는 선행을 필요 없게 하는가?

답변 전혀 그렇지 않다. 원인이 결과를 낳듯이, 믿음은 둘 모두에 적용된다.

10시부터 우리는 성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성화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다.

문 1 언제 내적 성화가 시작되는가?

답변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 성화는 시작된다. 그때 모든 은혜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심어진 것이다. 그때로부터 신자는 점진적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 몸이 온전히 성화될 때까지는 아직도 신자 안에 죄의 씨앗이 남아 있다.

문 2 사람이 온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변 그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성결함 없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죽을 수 없을 것이다. 설사 그가 임종의 순간 전까지 온전한 성화의 상태에 도달 못했을 지라도 말이다.

문 3 일반적으로 이 은혜는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주어지는 것인가?

답변 아니다. 이 은혜를 바로 구하지 않는 자, 결국 구하지 않는 자, 최소한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문 4 그러면 우리는 지체 없이 빨리 이 은혜를 기대하여야 마땅한가?

답변 마땅히 기대해야 한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의 대부분은 죽음 직전까지도 그렇게 성화되지 못했고,

2)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그의 서신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온전

히 성화된 사람은 극히 적었으며,

3) 사도 바울이 선교 초기에 서신을 썼을 때에도 그랬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5 그렇게 성화된 사람이 세속적 사업은 잘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답변 그렇게 성화된 사람은 주의 산만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함으로 이전보다 훨씬 잘 하게 될 것이다.

문 6 그는 결혼할 수 있겠는가?

답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문 7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가?

답변 조심해야 한다. 만일 저들이 받은 은혜에 충실하고 있다면 저들은 종국에 멸망할 위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설사 저들이 어떤 이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 달 또는 여러 해 동안, 어쩌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직전까지 총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멸망할 위험은 없을 것이다.

문 8 어떤 태도로 온전한 성화를 설교하여야 하는가?

답변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런 설교를 피하라. 앞으로 나가려 하는 자들에게는 설교하되 항상 그 은혜의 약속이 있음을 말하며 강요하는 태도가 아니라 끌어당기는 식으로 하라.

문 9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변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means)이다. 그 중에도 기도, 성경 연구, 신도와의 교제 그리고 금식 등이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회의록 III

1746년 5월 13일 화요일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존 웨슬리 (John Wesley),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존 허지(John Hodge), 조나단 리브스(Jonathan Reeves), 토마스 막스필드(Thomas Maxfield), 토마스 웨스텔(Tjomas Westell), 토마스 윌스(Thomas Willis).

문 1 불신자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간에) 하나님의 심판(justice)을 기피할 수 있는가?

답변 절대로 없다. 지옥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장이다.

문 2 우리가 처음에 하였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버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저들이 죄를 깨닫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사역을 잘하였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저들의 그릇된 근거들을 전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답변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주장했던 중요한 일들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근거들을 모두 버리기 전까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 3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들이 죄를 깨달도록, 곧 그들을 슬픔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것이 아닌가? 그들이 크게 낙심하고 평안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답변 그리 하였다. 그리고 계속 그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게 죄를 깨달으면, 그만큼 그들이 빨리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오는 모든 위안을 거절하는 자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자는 없다.

문 4 하나의 개별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조나단 리브스 씨,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 전에 그대가 무엇을 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지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징죄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는가?

답변 (조나단 리브스) 나는 그리 깨닫고 있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충분이 알고 있듯이.

문 5 당신은 그러한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답변 (조나단 리브스) 그렇다고 믿고 있다.

문 6 징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변 (조나단 리브스) 그 상태라는 것은, 만약 사람이 그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문 7 그런 죄책감이 어떻게 그쳤는가?

답변 (조나단 리브스) 처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는 강한 소망을 가졌다. 그런 소망이 어느 정도 나에게 평안을 가져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후에야 확고한 하나
님의 평안을 갖게 되었다.

문 8 아직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 되었다는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은 낮은 정도에서의 의롭
게 하는 믿음(justifying faith)이 아니겠는가?

답변 그것은 믿음의 전조(earnest)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 것은 단지 잠깐
머무르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다.

문 9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
인가?

답변 그때 그들의 믿음은 마치 유대인의 믿음과 같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 10 성경에 묘사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곧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사 50:10)
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가?

답변 유대의 섭리 시대 아래 있는 신자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곧 그
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
랑의 빛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자이다.

문 11 정신적인 유대인은 누구인가?

답변 하나님의 종이다. 곧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실로 순종하는

자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오시기 전까지 당신은 진실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조나단 리브스) 나는 어느 정도 진실했던 것 같다.

문 12 진실이란 무엇인가?

답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낮은 분야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일 것이다.

문 13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성을 중요시하는가?

답변 그렇다. 진실성 없이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문 14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진실성도 중요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답변 전적으로 그렇다. 만일 사람이 계속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문 15 어떤 면에서 신자의 진실성을 보아야 하는가?

답변 진실한 신자 각자가 그가 크고 귀중한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에서 보아야 한다.

문 16 진실한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답변 그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심과 같이 빛 가운데 걷는 자이다.

문 17 진실이라는 말과 전심으로(single eye)라는 말은 같은 뜻인가?

답변 똑같지는 않다. 후자가 우리들의 의도(intention)을 가리킨다면, 전자는 우리의 의지 또는 욕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 18 이는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답변 모든 것이 진실에 뒤 따라 온다. 하나님은 진실한 경우에 모든 것을 주신다.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

문 19 그러면 진실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동등한 말인가?

답변 그렇지 않다. 다만 이는 행위와 믿음의 관계에서 보듯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믿기 전에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곧 그가 받은 힘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이다. 그러나 믿은 후에 진실한 자은 어떤 사람인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에서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다.

문 20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원하는 마음(a willing mind,

고후 8:12)이라고 한 말이 아닌가?

답변 넓게 생각하면 그렇다. 왜냐하면, 그 말은 받은 모든 은혜를 사용하고 자 하는 변함없는 기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21 우리가 진실을 믿음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답변 아니다. 사람이 회개하고도 아직 의롭다함을 받지 못함과 같이, 사람이 진실하지만 아직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사람은 믿는 바로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문 22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조건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진실을 놓는 것이 아닌가?

답변 회개가 그렇듯이, 진실이 하나님께 용납되는데 하나의 조건임을 믿는다. 곧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납된 상태를 지속하는데 있어 진실은 하나의 조건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을 믿음의 자리에 놓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은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들의 영혼에 미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하지 않다면, 그 공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23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3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 라는 것이 아닌가?

답변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기를 구하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 24 당신은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고, 행위의 언약은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하나님께서 최초의 약속을 내리신 그 시간부터 전 인류는 은혜의 언약 아래 있었다. 당신이 행위의 언약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를 범치 않으면서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언약아래 있었던 사람은 아담뿐이다. 그런 언약은 가인이 출생하기 전에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이 전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어느 정도는 적용될 것이다. 이를테면,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하면, 살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는 법칙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

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들이 악을 행하면, 우리는 제2의 사망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25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롬 4:5)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답변 그 말은 사람이 믿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받아드리면서, 의롭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뜻이다.

문 26 우리가 믿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인가?

답변 그렇다.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사라진다. 마치 그런 죄들이 과거에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화요일 10시, 여기에서의 대화에는 테일러(Taylor of quinton), 글라스콧(T. Glascot) 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문 1 믿음의 확신, 성령의 영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말들은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닌가?

답변 그 말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 중 하나를 부정하는 자는 그 전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 2 순수한 복음이 전파 된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상 우리의 구원(our acceptance)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답변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다. 이런 것은 강한 어조로 주장되어야 한다.

문 3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가 아니면 행위로 받는가 하는 논쟁은 말다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답변 그렇지 않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 1) 죄에서의 용서(구원의 시작)는 행위를 낳는 믿음에 의하여 받는다.
- 2) 성화(구원의 계속)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 3) 천국(구원의 완결)은 이 믿음의 보상이다. 그런데 구원은 행위에 의

하여 또는 믿음과 행위에 의하여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신이 우리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곧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일—다시 말해, 구원, 사죄, 성화, 영광에 관한 이해에서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당신과 전혀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다툼 아니라 치명적인 다툼이다. 이 다툼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문제되는 것이다.

문 4 어떤 점에서 지금 주장하는 교리가 우리가 옥스퍼드에 있을 때 설교한 것과 다른가?

답변 주요하게 아래 두 가지에서 다르다.

- 1) 그 당시 우리는 칭의(Justification)에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righteousness of faith)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또한,
- 2) 사죄의 의식을 수반하는 믿음의 특성(nature of faith itself)에 대하여서도 몰랐다.

문 5 의롭다함을 받은 일에 대한 확실한 느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문 6 성화 곧 성결에도 단계 곧 정도(any degree)가 있을 수 있나?

답변 외적 성결에서는 여러 단계 곧 정도(degrees)가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결의 가지라고 볼 수 있는 온유에서, 그리고 그 외 여러 기질이나 태도에 있어 여러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가 크리스천이기에 그에게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솟아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그 기초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문 7 사람은 누구나, 그가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룩해졌고, 마음이 깨끗한 자 인가? 그러면 그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인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 하시는가? 그는 성령의 전(temple)인가?

답변 모든 신자는 이 모든 것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지 말자. 왜 우리들은 말을 가지고 싸워야만 하는가?

IV차 회의iv

1747년 6월 16일 화요일, 파운더리(Foundery)에서 모인 이 회의에는 아래 사람들이 참석했다. 존 웨스리(John Wesley), 찰스 매닝(Charles Manning, Vicar of Hayers), 리차드 토마스 베이트만(Richard Thomas Bateman, Rector of ST. Bartholomew's Great), 헨리 피어스(Henry Piers), 호웰 해리스(Howell Harris), 토마스 하드윅(Thomas hardwick).

문 1 의롭게 하는 믿음(Justifying faith)이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하는 것인가?

답변 그렇다고 우리는 믿는다.

문 2 이에 대한 열렬한 반대자들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답변 일반적으로 저들도 많은 신자들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는 바랄만 한 것이요 이를 위하여 기도할 일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는 최고의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며, 이는 신자 모두가 지니는 특권이 아니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확신이 의롭게 하는 믿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부인한다.

문 3 그들의 견해에도 그럴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이전의 참 신자가 이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면, 이는 확신이 의롭게 하는 믿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사실상 이전의 참 신자들은 이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답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옛 신자들이 이 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는다. 설사 유대인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 4 주의 사도들조차 오순절 날까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는 것을 당신은 모르는가?

답변 사도들도 오순절 날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문 5 사도 요한이 서신(요한일서)을 신자들에 보냈는데, 그 신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신자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라고 말했다.

답변 그것이 그 신자들이 믿지 않고 있었다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사도 요한이 의미한 바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그 말은 “나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위하여 이글을 썼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저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확신에도 정도(degrees)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문 6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도 참 신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들은 ‘선한 소망’만 가지고 있었지 이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살후 2:6).

답변 당신이 지적한 성경구절은 이와 같이 이어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 2:16-17).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선한 소망’은 확신을 배제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암시한다.

문 7 사도 바울도 자신에 관하여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고전 4:4)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답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관하여 말하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의롭다 함을 얻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여기서 지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문 8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전 2:3)고 한 말 가운데는, 그가 그런 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 그렇지 않다. 그의 말들은 결코 죽음이나 또는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함축하고 있지 않다. 그 말들은 그가 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자기의 부족함이 깊음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문 9 그가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성취하라”(빌 2:12)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신자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 아닌가?

답변 이는 모두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랑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두려움과 존경함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섞여 있는 법이다. 신자에게 두려워하라고 권고하는 말에도 같은 대답이 적용될 것이다.

문 10 실제로는, 의롭게 하는 믿음이 필연적으로 확신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그렇게 정직하고,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만사에 아주 책망 받을 것 없이 살아가는 J. A.나 E. V.가 의롭게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당신은 그들에 대하여, 그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확신을 얻기 위하여 계속하여 바라며,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답변 이 질문은 그럴만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 1) 공통의 교리(general doctrine)를 얼마 안 되는 사건에 근거하여 논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 2) 사람들은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질이나 습관에 의하여 선한 성격 그리고 흠 없는 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을 수 있다.

3)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모든 상황, 그들에 관한 지식을 정확히 잘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4)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문 11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변 그것은 우리가 추정할 일이 아니다. 저들은 그 상태에서 죽을 수가 없다. 저들은 후퇴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가느냐를 결정해야만 한다. 만약 저들이 계속하여 구한다면, 저들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평안을 발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그렇게 믿는다. 또 그 외의 사람들도,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변화의 외적 증거는 없었을 지라도 그와 같이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회의록 IV.

6월 17일 수요일.

문 1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우리 형제들이 온전한 성화에 관하여 어떤 것들을 인정하는가?

답변 저들은 다음과 같을 것을 인정한다.

1) 모든 사람은 임종에(in the article of death) 온전히 성화되어야만 한다.

2) 그때에 이르기까지 신자는 매일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완전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간다.

3) 우리는 계속하여 온전한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야 마땅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권고하여야 한다.

문 2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답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한다.

- 1)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온전히 성화되지 않았다, 곧 사랑에서 완전해지지 않았다.
- 2)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곧 참 신자들을 '거룩해진 사람이라' (sanctified)고 거듭 말했다.
- 3) 사도 바울은 단 한 차례도 '거룩해졌다'는 말만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4) 따라서, 온전한 성화나 전적인 성화 혹은 그와 비슷한 말을 덧붙여 부르지 않고, 그냥 '거룩해졌다'는 말로 온전한 성화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5) 성경 기자들은 거의 계속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며, 온전히 성화된 신자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에게 말한 일은 매우 드물다.
- 6) 따라서 우리도 공개석상에서는 거의 계속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온전한 성화에 관하여는 충분히 그리고 명석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매우 드물 수밖에 없다.

문 3 그러면 그 교리에 있어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변 견해가 다른 부분은 우리들이 임종 전에 모든 죄에서 구원 받을 것을 기대하여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이다.

문 4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가?

답변 성경에 있다. 다음 성경구절을 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시 130:8). 이것은 에스겔의 예언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리라”(겔 36:25, 29).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관련하여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후 7:1). 다음의 옛 약속에도 분명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신 30:6).

문 5 신약성경에도 이런 주장과 같은 말씀이 있는가?

답변 더 분명하게 언급한 말씀들이 있다. 사도 요한은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 모든 죄는 마귀가 한 일이다. 인자는 마귀의 모든 악한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와 일치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5-27). 같은 내용의 주장이 로마서 8장 3-4절에도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3-4).

문 6 신약성경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말하고 있는가?

답변 있다. 우리의 강한 주장에 상응하는 말들이 기도로, 그리고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다.

문 7 어떤 기도가 있다는 것인가?

답변 온전한 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다. 만약에 온전한 성화가 없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 1)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는” 악한 자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모든 악에서 구원받으면 거기에는 죄가 남아 있을 수 없다.
- 2)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

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0-21, 23).

- 3)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4, 16-19).
- 4)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문 8 또 이를 위한 어떤 명령이 있는가?

답변 다음과 같은 명령이 있다.

- 1)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 2)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전부를 채우면, 거기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

문 9 그러나 온전한 성화가 임종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답변 첫째로, 죽은 자에게 그 명령을 한 것은 아니다. 곧, 이는 명령의 성격으로 보아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네가 죽을 때 그리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네가 살아 있을 때 그리하라는 명령이다. 두 번째로, 성경 본문의 표현을 보아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 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

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1-14).

- 2)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눅 1:67-75).

문 10 성경에 온전한 성화를 받은 사람들의 예가 있는가?

답변 있다. 사도 요한과 그가 요한일서 4:17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요일 4:17).

문 11 그러나 신약성경에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왜 더 많이 있지 않는가?

답변 이 일에서는 우리가 단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성경에 그에 대하여 많이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사도들이 아직도 어린이 상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어린이들에게 너무 굳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여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 12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렇게 완전해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답변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예를 적게 들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사냥

하려는 표적이 될 터이니, 그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얼마나 시험이 되겠는가.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한편, 그러한 사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헛된 것이겠는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눅 16:31).

문 13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간증을 하라고 권고할 것인가?

답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반발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회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분명한 이유 없이, 즉 다소라도 유익이 될 가망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들은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티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문 14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가?

답변 설사 저들이 사실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을 안 믿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서둘러 믿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하고 강한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 15 우리에게서 자신 스스로 “나는 모든 죄에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은근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답변 그럴 수 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 1)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선한 영혼들이 해를 입거나 탈선할지 모른다는 관심에서,
- 2)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일종의 무언의 시기에서,
- 3) 또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우둔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을 준비가 되지 않은데에서 그런 것 같다.

문 16 ‘완전’을 모질게 설교하면 이는 신자들에게 구속과 비열한 두려움

을 가져다주기 쉽지 않은가?

답변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설교를 가장 호의적이고 친절한 견지에서 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설교가 오로지 희망과 기쁨과 소원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문 17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어찌 믿음이 주는 기쁨 안에서 계속 살지 않을 것인가?

답변 어찌 안 그러겠는가. 거룩한 슬픔은 그 기쁨을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아래,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하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18 신자들이 언제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그만두게 하고 있지(dis-courage) 않는가?

답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케 하도록 해야 한다. 설사 그들의 기쁨에는 약간의 자만(pride)이 섞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인) 그 기쁨 자체에 대하여는 시비하지 말자. 미약한 자만으로 말미암아 악은 사라지고 선한 것이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문 19 우리는 (완전의) 은혜를 얻기 전에 죽지 않기 위하여, 완전에 대하여 걱정하며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 우리는 영적인 것이나, 세상의 일이나, 그밖에 모든 일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문 20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죄의 성질(the sinful nature)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답변 우리가 그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 있고, 주님 앞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우리를 보다 진지하게 자극하여 매 순간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빛과 생명 그리고 능력을 받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 거듭 승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느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더욱 많게 하여야 한다.

문 21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 우리의 기쁨 또는 고통도 더하는 것인가?

답변 아마도 둘 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증가하는 대로 주안에서의 우리의 기쁨도 증가할 것이다.

문 22 몇몇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자신의 타고난 죄에 계속 집착케 하며, 이전에 지은 죄들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게 하지 않는가?

답변 경험상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치 없는 것같이 만들고, 작고 시시한 일에 집착하게 만든다. 훗날 더 큰 선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의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진실로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